

# 다시 고개 든 '코리아 디스카운트'... 美 상장 국내기업 고전

계엄령 선포 후 패닉셀 현상 보여  
쿠팡·네이버웹툰, 전날비 하락 마감  
아이셰어즈 MSCI 코리아, 1.59% ↓  
ADR 형태 거래 기업도 장중 약세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 계엄령으로 인해 간밤 뉴욕증시에 상장된 한국 관련 주식들이 큰 하락세를 보였으나, 계엄령이 해제되면서 낙폭을 일부 회복했다. 이로 인해 관련 종목이나 상품에 투자한 투자자들 사이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 관련주·상품들은 계엄령이 선포된 상태였던 장중에는 주가 하락을 면치 못하며 패닉셀 현상이 나타났지만, 계엄령 해제 소식과 금융당국의 '무제한 유동성



ChatGPT에 의해 생성된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 계엄령의 여파로 떨어진 주식을 보며 놀라고 있는 투자자 이미지.

공급' 발언으로 낙폭을 빠르게 줄였다.

미 뉴욕증시에서 쿠팡의 주가는 이날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소식으로 미 동부시간 3일(현지시간) 기준 전장 대

비 장중 22.41달러(-9.8%)까지 하락했다. 그러나 국회가 계엄령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한 이후 하락폭을 일부 만회하며, 전장 대비 3.74% 하락한 23.92

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나스닥에 상장된 웹툰엔터테인먼트(네이버웹툰)도 전날 대비 1.03% 하락한 증가 12.49달러를 기록했다.

계엄령은 한국 주요 기업에 투자하는 상장지수펀드(ETF)도 악영향을 미쳤다. '아이셰어즈(iShares) MSCI 코리아'의 시세는 장중 7%가량 하락하다가 증가는 1.59% 하락한 채 마감했다. 이 ETF는 뉴욕증시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한국 대표 기업 90곳 이상을 추적하는 39억 달러(약 5조5025억원) 규모의 인덱스펀드다.

미국 주식에탁증서(ADR) 형태로 뉴욕증시에서 거래되는 다른 국내 주요 기업들도 장중 약세를 보였다. 포스코홀딩스는 약 4.36% 하락했으며, KB금융의 주가는 2.7% 떨어졌다.

이러한 상황을 마주한 투자자들은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며 한숨을 내쉬고 있다.

쿠팡에 투자한 한 투자자는 "쿠팡이 미국 증시에 상장돼 있지만, 한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만큼 얼마 전 흑자 소식에 기뻐했는데, 이런 일로 주가가 하락해 당황스럽다"며 "국내 주식을 피하려고 미국 시장에 투자했는데, 결국 한국 관련 기업을 선택하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겪게 됐다"며 쓴웃음을 지었다.

다만 증권가에서는 계엄령 여파가 미국 증시에는 우려만큼 크지 않았다는 해석을 내놨다. 서상영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한국 CDS(신용부도스왑) 프리미엄이 안정을 보였고, 원화와 해외 ADR(주식에탁증서) 등이 변동성 확대 후 일부 안정을 보였다는 점은 우호적"이라고 언급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 코스닥 상장사, 경영악화 속 유상증자 급증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유상증자 371건  
대부분 운영자금·채무상환에 사용  
악재로 작용되며 투자심리 위축

올해 경영악화로 코스닥 상장사들의 유상증자가 급증하면서 증시의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미국증시와는 달리 국내 증시가 부진한 가운데 기업들이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유상증자에 나서면서 시장 전반의 투자심리를 위축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4일 한국에탁결제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코스닥 시장의 유상증자는 총 371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334건보다 11%가량 증가한 수준이다. 또한 유상증자로 발행된 주식 수는 39억170만주로, 지난해 같은 기간(22억7083만주)보다 약 72% 늘었으며, 유상증자로 확보한 자본금도 지난해 8115억원에서 1조1841억원으로 약 3700억원 증가했다.

통상적으로 유상증자는 기존 주식의 가치를 희석시키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 악재로 작용한다. 기업 실적성이 성장

하지 않는 상황에서 발행된 주식 수만 늘어나게 되면, 주당 이익이 감소한 결과를 야기한다.

특히 유상증자의 자금 사용 목적에 따라 시장 반응도 상반될 수 있다. 시설 확충이나 인수합병(M&A) 등 기업 성장에 도움이 되는 자금 조달이면 중장기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지만, 운영자금이나 채무 상환을 위한 유상 증자 방식은 단기적인 문제 해결에 그칠 수 있어 주가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 문제는 올해 코스닥에서 유상증자로 조달된 자금 대부분은 운영자금이나 채무 상환에 사용되면서 주가 하락을 부추겼다.

실제로 지난달 28일 장 마감 이후 5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정한 오성첨 단소재의 주가는 다음 거래일인 29일에 3.29% 떨어졌다. 현대바이오 역시 지난 달 15일 운영자금 조달을 위해 약 948억원에 이르는 대규모 유상증자 결정을 공시했다. 이후 현대바이오의 주가는 10.75% 급락했다.

현재 코스닥 기업들의 경영 상황은

악화일로로 걷고 있다. 코스닥 상장사 1153곳의 3분기 누적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각각 7조8777억원, 4조3075억원으로 6.22%, 29.29% 줄었다. 여기에 코스닥 상장사들의 부채비율은 107.72%로 지난해 말(105.82%)보다 1.90% 포인트 상승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도 코스닥 기업들의 유상증자 단행이 빈번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유상증자를 단행한 기업들은 대체로 재무적 어려움을 오랫동안 겪어온 경우가 많은 만큼 투자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유상증자는 기업이 외부 자금을 유입시키는 마지막 수단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이를 증가시키는 기업들이 많아진다는 것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이 많다는 뜻"이라며 "유상증자는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투자자는 기업의 현 상황과 향후 개선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투자 결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관희기자 wkh@

## 이복현 "정치적 불확실성에 변동성 확대될 수 있어"

확대 금융상황 점검회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비상계엄 이후) 점차 안정을 찾아가는 모습이나, 향후 정치적 불확실성에 따라 시장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며 금융시장의 철저한 위기대응 태세를 당부했다.

이 원장은 4일 금감원 임원들과 '확대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해 비상계엄 이후 금융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하며 이같이 말했다.

당초 이날 오전에는 이 원장과 국내 증권사 최고경영자(CEO) 36명이 한 자리에 모이는 간담회 일정이 예정돼 있었으나 금감원은 이를 무기한 연기한다고 통보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를 마치고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금감원은 시장 정상화 시점까지 24시간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해 매일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이어 이상 징후 탐지 시 관계기관과 필요한 모든 안정조치를 실행할 것이라고도 밝

혔다.

또한 외은지점 등 해외투자자들과 간담회를 통해 국내 대외건전성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통에 나서기로 했다. 금융권 외화조달 여건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금융사별 외화유동성 변동 추이도 점검한다.

기업을 상대로는 금융예로 상담센터를 운영해 필요시 대출 만기연장, 상환유예 등 신속지원 프로그램 등을 지원한다. 투자자들의 불안심리에 편승한 허위·풍문 유포행위 방지를 위해 관계기관과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당국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환율과 증시 변화가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허정윤 기자



NH투자증권, '빅데이터 경진대회' 성료

NH투자증권이 2024 빅데이터 경진대회 '시로 미국 ETF를 발견하다'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NH투자증권은 전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파크원 금융타워2 본사에서 경진대회 결선 및 시상식을 진행했다고 4일 밝혔다. 2024 빅데이터 경진대회 '시로 미국 ETF를 발견하다'는 지난 8월부터 약 4개월간 진행됐으며, 국내외 대학생과 대학원생 약 1000여 명이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생성형 AI를 활용한 미국 ETF 큐레이션 서비스 아이디어를 제안했으며, 이 중 30개 팀이 예선을 통과해 본선에 진출했다. 본선에서는 상위 6개 팀이 결선에 올라 최종 수상팀이 선정됐다.

/NH투자증권

## "회계정보 유용성 위해 기본법 제정 필요"

공인회계사회-회계학회 심포지엄

한국공인회계사회와 한국회계학회가 한 자리에 모인 심포지엄에서 회계정보 유용성 높이기 위한 회계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2일 한국공인회계사회는 한국회계학회와 함께 '회계기본법 제정의 필요성과 추진 방향'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최운열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이번 심포지엄은 회계정보의 생산과 공시, 감사와 감독 전반에 대하여 공통으로 적용되는 일관된 회계정책을 마련하려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라며 "다양한 분야에 산재해 있는 회계 관련 법률을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심포지엄은 박종성 숙명여대 교수가 주제 발표를 맡아 법인 형태와 공공·민간 부문 간 회계정보 제공 과정에서 드러난 국내 회계제도 주요 문제점을 짚어보고, 국가적 회계 기반 강화를 위한 추진방안에 대해 제안했다.

박 교수는 "회계정책의 일관성 유지

와 회계 사각지대를 최소화해야 한다"며 "회계정보의 유용성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 대안으로 회계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종합토론에서는 김기영 차기한국회계학회장이 좌장을 맡았다. 토론자로는 ▲임철현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강민정 인천대 교수 ▲강경진 한국상장회사협회 본부장 ▲류미정 홀트아동복지회 본부장 ▲박정선 삼일회계법인 이사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임 교수는 "입법 단계의 저항을 대응하는 방안과 인공지능(AI) 기술의 고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민정 교수는 "미국 등 해외사례를 참고한 독립성, 전문성 등 감사기준의 체계화와 더불어 회계담당자의 편의 제고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또 강 본부장은 "다양한 정부 부처의 이견 조율을 위해 실무추진 TF를 가동해야 한다"고 제안했고, 류미정 본부장은 "다수의 정부 부처에 각각 다른 회계기준에 따라 보고해야 하는 비영리법인의 어려움을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허정윤 기자